캄보디아 뽀디봉 마을에서 온 편지 ⑯

가난은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수레꾼은 8월 31일 뽀디봉 마을에서 형편이 어려운 150가구를 직접 찾아가 쌀을 전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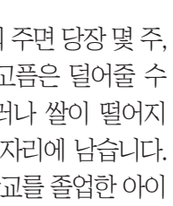
지난 8월 31일, '수레꾼'은 뽀디봉 마을에서 세 번째 쌀 나눔을 했습니다. 1차와 2차 쌀 나눔 때는 뽀디봉 마을 전체 가정을 대상으로 초등학교 교정과 공예학교 앞마당에 주민들을 모이게 한 뒤 쌀을 나눠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방법을 달리했습니다. 마을 전체 380여 가구 가운데 특별히 형편이 어려운 150가구를 선정해 직접 집집마다 찾아가 쌀을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쌀을 나눠주는 것도 중요했지만, 그들이 지금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마주한 그들의 삶은 큰 충격이었습니다.

수레꾼이 이 마을에 처음 초등학교를 세운 것은 2008년입니다. 당시 뽀디봉 사람들은 우기에 내린 빗물을 받아 식수로 사용했고, 웅덩이의 흙탕물을 항아리에 담아 몸을 씻었습니다. 집이라고 해 봐야 나무와 판자를 얼기설기 엮어 만든 움막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8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2008년의 모습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허술한 집 지붕 한쪽에 손바닥만 한 태양광 패널이 하나씩 매달려 있다는 정도였습니다. 그들의 집 안으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집이라고 부르기조차 어려운 움막 안에는 나무를 얼기설기 엮어 만든 침상 하나가 놓여 있었고, 부엌에는 낡은 냄비 몇 개와 옷가지가 살림살이의 전부였습니다.

더욱 마음이 아팠던 것은 우리 공예학교 목공반에서 기술을 배우고 있는 학생 네 명 가운데 세 명의 집도 그 안에 있었고, 봉제반에서 새로 배우기 시작한 여섯 명의 학생 모두가 이러한 가난한 가정의 아이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수레꾼은 뽀디봉 마을에서 형편이 나아진 사람들을 주로 보아왔습니다. 학교와 우물이 생기고 길이 좋아지며 집을 새로 짓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을 전체가 조금씩 가난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마을 구석구석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그간 미처 보지 못했던 또 다른 뽀디봉을 만났습니다. 18년 전 처음 만났던 주민들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가난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직도 이렇게 많을 줄은 몰랐습니다.

쌀 한 포대를 나눠 주면 당장 몇 주, 어쩌면 몇 달의 배고픔은 덜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쌀이 떨어지면 가난은 다시 그 자리에 남습니다. 수레꾼 뽀디봉 중학교를 졸업한 아이들 가운데 절반 가까이는 가난 때문에 더 이상 공부를 계속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의 전쟁과 불안정한 상황으로 주변의 일자리마저 줄어들면서 졸업생들이 마을에서 스스로 살아갈 길은 더욱 좁아졌습니다. 이번에 가난한 가정들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새삼 '수레꾼 뽀디봉 공예학교'를 세우기를 참 잘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수레꾼은 계속 자신의 손으로 물건을 만들고 판매해 돈을 벌 수 있는 기술을 가르쳐, 가정을 돕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꾸려갈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쌀은 언젠가 떨어지지만, 한번 익힌 기술은 자신의 두 손에 남습니다. 그것이 앞으로 수레꾼이 뽀디봉에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오시환
자비를 나르는 수레꾼 대표

사찰음식에 마음을 담다 ⑧ 조상에 대한 감사, 백중 공양 음식에 담다

감사와 추모의 뜻 오래도록 이어지길

백중은 불교에서 조상의 은혜를 되새기고 감사의 마음을 올리는 뜻깊은 날이다. 사찰에서는 이 시기를 맞아 정성껏 음식을 마련하고 가족과 이웃이 함께 공양하며 나눔과 감사의 의미를 되새긴다. 먼저 떠난 이들의 평안과 극락왕생을 기원하고, 지금 곁에 있는 인연의 소중함을 돌아보는 시간이기도 하다.

이번 백중 공양에는 계절의 식재료를 정갈하게 다듬어 만든 사찰음식을 준비했다. 시원한 미역 오이냉국을 비롯해 머위대 들깨나물, 비름나물 비트샐러드, 바질페스토 가지샐러드를 올렸다. 제철 재료 하나하나의 맛과 색을 살려 소박하면서도 정갈한 한 상을 차렸다.

비트샐러드는 비트를 얇게 썰어 부드럽게 익힌 뒤 달콤한 오디잼을 곁들여 은은한 맛과 고운 색을 살렸다. 구운 가지에 마늘을 제외한 바질페스토를 만들어 올려 향긋하고 산뜻한 풍미를 더했다.

따뜻한 음식으로는 목이버섯과 채썬 유부 간장조림, 당근과 고추를 넣은 채소잡채와 청포묵 깻잎무침을 준비했다. 또 바삭하게 튀겨낸 누룽지와 찹쌀표고버섯 유자탕수를 함께 올렸다. 쫄깃한 표고버섯에 바삭한 찹쌀옷을 입히고 상큼한 유자탕수 소스를 곁들여 담백하면서도 산뜻한 맛을 살렸다. 음식마다 재료의 특성을 존중하고 서로 다른 맛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도록 정성을 다했다.

조상의 은혜 되새기며 극락왕생 기원
제철 식재료에 감사와 존중 담아 조리
가족과 이웃이 함께하는 뜻깊은 시간

백중을 맞아 올린 차 공양에는 특별한 정성이 더해졌다. 화개에서 오랫동안 차를 재배하고 직접 차를 만들어 온 차 지도자가 여러 종류의 차를 정성껏 준비한 것이다. 덕분에 백중의 공양 자리에서 조상님께 맑고 향기로운 차를 올리며 감사와 추모의 마음을 함께 전할 수 있었다. 찻잔에 은은하게 피어오르는 차향은 도량의 고요함과 어우러져 더욱 깊은 울림을 주었다. 한 잔의 차를 올리는 소박한 공양이지만, 그 안에는 선대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리는 마음과 모든 인연에 감사하는 불자의 정성이 오롯이 담겼다.

백중의 공양은 단순히 음식을 차려 올리는 데 그치지 않는다. 한 해 동안 받은 은혜를 돌아보고 먼저 떠난 이들의 평안과 극락왕생을 기원하며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수행의 한 과정이다. 음식을 만드는 손길에도, 함께 음식을 나누는 마음에도 조상과 가족을 향한 사랑과 감사가 깃든다.

사찰음식은 자극적인 양념과 인공적인 맛을 줄이고 제철 식재료가 지닌 본연의 맛을 살린다. 소박한 채소 한 가지와 나물 한 접시에도 자연에 대한 감사와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이 담긴다. 음식을 준비하는 과정 또한 자연이 베푼 은혜를 되새기고, 먹는 이의 건강과 평안을 기원하며 마음을 가다듬는 시간이 된다. 정성을 들여 음식을 마련하는 손길 하나하나가 곧 공양을 올리는 마음을 닦는 수행이 된다.

정성으로 마련한 한 상의 공양에는 조상에 대한 감사와 그리움, 가족의 평안과 이웃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 오롯이 담긴다. 백중은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걸음을 멈추고 우리의 뿌리를 돌아보는 시간이다. 한 접시 한 접시의 음식처럼 조상에게 감사하고 자연에 감사하며 함께 살아가는 이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오래도록 이어지기를 바란다. 정갈한 음식과 맑은 차에 담아낸 공양의 마음이 조상님께 온전히 전해지고, 그 감사와 추모의 뜻이 오래도록 깊은 울림으로 남기를, 그리고 그 마음이 후대에도 이어지기를 바란다.



황수경
루미에르드포레 CEO

스마트폰에 담은 사찰 꽃문 ㉛ 지옥과 극락의 거리는?

'지옥'과 '극락'의 거리는 얼마나 될까? 두 곳 다 아직 가 보지 못해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믿을 만한 사실을 근거로 추정해 볼 수는 있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 밝히기로 하고, 무량사 명부전에서 만난 극락 얘기를 좀 해볼까 한다.

무량사 명부전의 문살은 예전에 살림집에서도 흔히 달았던 평범한 띠살문이다. '사후 재판소'의 문치고는 지나치게 소박하다. 덕분에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가 보니, 먼저 온 사람이 있었다. 50대 중반쯤의 여성이었다. 얼핏 보기에도 표정에 그늘이 짙었다. 이럴 때 한국 할머니의 친화력은 자동으로 발동한다. 어떤 사연으로 홀로 명부전에 앉아 있냐고 물어보니, 남편과 다투고 집을 나왔다고 했다. 지난밤을 찜질방에서 보내고 나니 갈 곳이 여기밖에 없더란다. 부부 싸움이야 다들 하며 살고 '칼로 물 베기'라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지옥을 헤매게 된다. 그 마음이 만져질 듯해서 한참 동안 하소연을 들어 주었다. 적당히 맞장구도 치면서.

명부전의 문을 열고 돌아앉으니 오층석탑을 둘러싼 빛이 와락 쏟아져 들어왔다. 왜 아미타부처님을 무량광불이라 하는지 알 것 같았다. 한결 마음이 밝아졌다. 더욱이 '빽'도 든든하다. 우리 뒤의 지장보살님은 벌을 주는 심판관이 아니라 '지옥을 텅 비우는 것'을 원으로 삼은 보살님이다(갈수록 지장보살님의 할 일이 태산일 것 같아서 걱정이긴 하다).

지옥과 극락의 거리는 20m다. 무량사 극락전에서 명부전까지 거리를 발걸음으로 어림해 보니 딱 그 정도였다.

손영자 작가



무량사 명부전.

